

- 조계종 포교전진대회 현장 -

## 수행으로 시작 나눔으로 회향

포교·신행단체 대표 및 임원진 250여 명 참석



한 참석자가 서원지를 작성하고 있다.



경건하게 진행된 촛불의식.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사진 왼쪽)이 나눔의 모금함을 통도사 자비원 사무처장 삼해 스님에게 전달하고 있다.

### ■ “부처님께 서원합니다”

“언제나 부처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해 주십시오. 어린이 포교의 밝은 날이 가까이 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온 국토와 전 세계가 부처님 나라가 되 월 벗고 굶주림 없이, 전쟁으로 공포에 떠는 일 없이, 서로 도와가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항상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고, 도움받기 보다 도움 줄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1월 20일 양산 통도사 설법전. 대한불교어린이 지도자연합회 박성인 간사가 서원문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박 간사를 중심으로 2차 형태로 둘러앉은 사람들은 자기 앞에 놓인 촛불을 등시한 채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어둠 해진 사위로 촛불만이 빛을 발하고 있었다.

권중서 서울·경기포교사단 사찰문화해설 1팀장은 자신이 포교활동을 하는 수원 용주사 일대에 효행테마 공원이 조성되도록 발원했다.

“제가 포교하고 있는 용주사는 전국 제일의 효 본찰이지만 이제 그 일대가 개발의 몸부림에 직면했습니다. 그 개발을 멈추게 해 주셔서, 용주사 응·건능 사이의 30만평을 세계 제1의 효행테마 공원으로 조성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처님을 받드는 세상으로 변화되기를 서원합니다.”

사원은 조금씩 달랐지만 참석자들의 소망은 한결 같았다. 새해에도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불자가 되겠다는 귀의와 스스로 주위를 밝히고자 하는 발원이 그것이다.

### ■ 가족·이웃에 먼저 모범 보이세요

불기 2551년 조계종 포교원의 종책을 공유하고 각 단체별 사업계획을 점검하기 위한 포교전진대회가 1월 20일부터 21일까지 통도사에서 열렸다.

20일 열린 입재식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통도사 주지직무대행 지은 스님, 10개 구부보사 포교국장, 김의정 중앙신도회장, 양성홍 포교사단장과 각 포교·신행단체 대표 및 임원진 250여 명이 참

석했다.

혜총 스님은 입재식에서 “수행을 해야 내가 행복하고 남을 이롭게 한다”며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이번 포교전진대회를 통해 얻은 것들을 바탕으로 실천수행할 때 가족과 이웃들이 불교의 품으로 돌아온다. 그것이 바로 나눔이다”라고 설명했다.

김의정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수행과 나눔에 대한 기치는 현대사회 복지와 종교 문화에 꼭 필요한 지침”이라며 “한국사회 현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방향과 내용들에 대해 진지한 토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포교부장 동범 스님은 포교정책발표에서 “올해부터 청소년을 포함한 어린이 포교를 중점 과제로 삼는 포교원의 제반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며 △포교컨설팅 2차년도 사업 및 수도권 포교현황조사를 중심으로 총 9개 분야 사업 △간혹선 지도인력 양성 및 사이비 불교대학 운영을 중심으로 총 10개 분야 사업 △어린이 포교 관련 제도개선 및 사찰 어린이 범죄 개선을 중심으로 총 14개 분야 사업 △계층별 간학선 입문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실질적 신도확보를 위한 포교정책 개발을 중심으로 6개 분야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입재식에서 병원불자회와 한국철도공사불교단체협의회가 지난해 뛰어난 포교활동을 한 공로로 포교단체포상을 받았다.

### ■ 수행·나눔 특강 열고 보시금 전달

21일 오전 7시 통도사 부도탑 앞. 철쭉 같은 어둠

을 깨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가지런히 줄을 맞춘 그들은 죽비소리에 맞춰 3보1배를 하기 시작했다.

포교원 포교국장 오심 스

님을 선두로 1보에 부처님께 귀의

하고, 2보에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하며, 3보에 스

님들께 귀의했다. 또 1보에 탐심(貪心)을 멸하고, 2

보에 진심(瞋心)을 멸하며, 3보에 치심(痴心)을 멸

했다.

어둠은 물러가고 밝은 기운이 다가왔다. 사람들이 내뿜는 더운 입김이 경내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거친 숨소리 사이로 나지막이 ‘관세음보살’을 찾는 이도 있었다.

금강계단에 도착한 이들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흐르는 땀이 얼굴을 타고 흘렀지만 환희심으로 넘쳐났다.

“수행으로 입재하고, 나눔으로 회향하자”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포교전진대회에서 수행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통도사 전계대화상 해남 스님의 ‘수행에 대한 특강’이 열렸으며, 108배와 3보1배가 진행됐다.

나눔의 의미를 확산시키기 위해 조계종 승가대학원장 지안 스님의 ‘나눔에 대한 특강’이 열렸으며, 포교전진대회를 통해 모아진 보시금을 통도사

자비원에 전

달했다.

자비원 사무

처장 삼해 스님

은 “자비로운 손길

로 모든 보시금으로

이 세상 구석구석을 따

뜻하게 만들도록 노력하겠

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 ■ 정보교류의 장으로 거듭나야

이번 포교전진대회는 예년과 달리 호텔이나 유스호스텔이 아닌 사찰에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숙식문제 등 여러 가지 불편함이 뒤따랐다. 하지만 입재식 후 100여명 이상이 자리를 뜨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동범 스님은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야겠다”고 말했다.

또 진행상의 문제점도 거론됐다. 포교전진대회는 새해를 맞아 포교·신행단체장 및 주요 임원진들이 상호 정보를 교류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불교여성개발원 한주영 연구과장은 “수련회처럼 딱딱하고 수동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대화 성격에 맞게 활발하고 화기에애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며, 단체들끼리 교류할 수 있는 자리와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산 통도사/글·사진·남동우 기자

## SHC 삼환종합양초

삼보귀의 하얗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을 개발하여 **(실내용 양초=밀납양초, 약쑥양초, 식물성양초)**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

FAX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 ▶ 밀납양초(蜜蠟洋燭)

- 1 밀납초(1-4호까지 8개入 받침대 2개入)선물세트
- 2 밀납초금강경(7개入)선물세트
- 3 밀납초원기둥 7.4φ × 30Cm
- 4 밀납초돈타레 5.6φ × 27Cm
- 5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φ × 20Cm 연소시간 약 80시간 이상
- 6 밀납초 1호 금강경 5.9φ × 20Cm 연소시간 약 80시간 이상
- 7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φ × 14Cm 연소시간 약 30시간 이상
- 8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φ × 10Cm 연소시간 약 24시간 이상



### ▶ 약쑥양초

- 1 원기둥 7.4φ × 30Cm
- 2 돈타레 5.6φ × 27Cm
- 3 약쑥향 1호 5.9φ × 20Cm
- 4 약쑥향 3호 4.7φ × 13Cm
- 5 약쑥향 4호 4.7φ × 10Cm
- 6 약쑥향 등초 3.1φ × 12.5Cm



### ▶ 식물성양초

- 1 식물성양초 원기둥 7.4φ × 29Cm
- 2 식물성양초 돈타레 5.6φ × 27Cm
- 3 식물성양초 밀 대 4.6φ × 26Cm